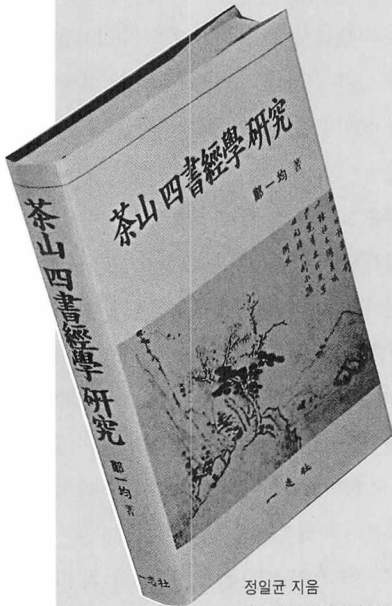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산경학 연구
경전의 면밀한 해석 우선돼야**

《다산 사서경학 연구》



정일균 지음
일지사/A5신/554면/23,000원

정일균 박사의 역작인 《다산 사서경학 연구》를 읽어보고 같은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 흐뭇함을 금할 길이 없다. 다산의 학문연구는 실용과 실증을 중시하고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는 '실용지학'(實用之學)이며 '구진'(求真)의 입장이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일찍이 다산의 경학은 '민중을 위한 경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저술은 첫째, 유교경학과 다산의 사회학적 경학, 둘째, 다산의 사서주석의 내용과 해석방법론, 셋째, 사서에 나타난 사상일반의 세부분으로 나뉜다. 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토로하고자 한다.

먼저 유교의 경학과 경세학이 단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이라는 두 날개만의 역할이 아니라 도기론적(道器論的)으로 상호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는 것은 경학의 내외를 꿰뚫어본 발언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배계급 내 상이한 집단의 투쟁수단으로서 경학을 보는 것은 아마도 예송 문제를 지칭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회학적 경학에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경학도 시대적인 산물이다. 경학연구를 "역사적 내지 사회적 상황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보는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

다. 사회관계 속에서 먼저 경전을 보는 것과 경전의 내용을 순수한 맨눈으로 보는 경우는 다를 것이다. 근기(根基)가 제대로 설 때 그 응용이 가능하다. 경전내용의 면밀한 해석 없이 사회적 경학을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셋째, 다산이 주자의 경학태도를 중시한 것은 시대적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리학 측면에서는 정주학(程朱學)을 해체의 대상으로 여겼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민중을 위한 경학'이라면 성리학이건 양명학이건 그의 경학세계라는 용광로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오학론>에서 참된 의리를 찾는 성리학까지도 다산은 수용하고 있다.

넷째, "다산 정약용의 경전해석태도"에 관한 부분은 이 저술의 약점이기도 하다. 사회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가다머의 '해석'이라는 용어에 얽매어 다산 자신이 말한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저자는 "수사학으로의 회귀"라는 해석 목적론에 회의하지만, 다산이 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복고주의를 주창했는지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양론·지식론·학문방법론 등과 같은 내용이 결여돼 있다. 경학을 알기 위해서는 경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자를 통해 그의 철학적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기초철학적 바탕 위에서 민중의 경학, 실용실증적 경학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학적인 관점의 연구라면, 그의 '일표이서'(一表二書)를 면밀하게 조사해 그 곳에서 다산의 세계관과 경세학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을 버리고 성급하게 서구적인 분석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 자연 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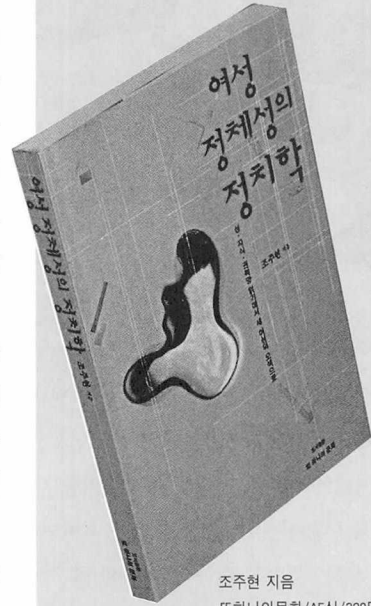
저자의 이어지는 역작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마디 덧붙였다.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정병련

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저서 《한국철학의 심층분석(1~3)》 《다산 사서학 연구》 외.

**여성의 성·언어·문화권력 재해석
여성의 주체성 재구성하는 법 제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조주현 지음
또하나의문화/A5신/328면/10,000원

내부/외부, 사적인 것/공적인 것 사이의 고전적인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이제는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하면서 페미니즘들(feminisms)로 '변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의 사회적 삶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도전했던 운동의 방향은 성정체성과 성별 정체성의 구성으로 관심이 이전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부장적인 제도가 여성의 위치를 정해주는 방식에 대한 구조주의적 탐구에서 그 조건에서의 저항의 쾌락, 적어도 협상의 쾌락을 생산해내는 방식에도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맥을 같이해 '매맞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남편과의 화합에 대한 간절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 및 동일화 과정을 정치적/사회적 질문으로 정치화하는 한 페미니스트의 글들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왔다. 이 책 역시 80년대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 권위주의·획일주의·성차별주의 등 밖으로 향한 시선을 여성들이 속한 공간에 대한 관심, 즉

여성의 성·언어·문화권력에 대한 재해석으로 일찌감치 방향을 틀었다.

지은이는 담론들의 경합을 통해 여성이 구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여성의 능동성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즉 '여성은 담론의 산물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는 주장아래 물질-기호적 존재(material semiotic entity)로서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 아내 구타현장에 있는 여성부터 전문직 여성, 가족 구조내의 여성 그리고 사이보그까지 등장시켜 여성이 놓인 조건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여성을 여성으로 만드는 권력의 효과에 틈새를 내기 위해 권력의 성애화 고리를 끊는 저항지점을 모색한다. 사회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담론 안에서 여성정체성의 균열뿐 아니라 성폭력당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묻는다. 결국 지은이는 여성의 주관적·심리적 공간의 확보와 미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 즉, '새 여성'의 권리를 제시한다.

특히 지은이는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을 빌어 오지만 그들의 이론이 가족의 재생산과 결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여성 정체성의 유지에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현장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험에 귀기울인다.

이 책은 10년동안 한국 현실의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다듬어온 지은이의 학문적 고민이 담겨있어 연구자들에게 인식론적 틀 거리를 제공한다. 단지 이 땅의 여성들이 물질-기호적 존재로서 어떻게 삶을 구성하며 협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위한 정치운동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지은이의 지속적인 과제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명명하는 이들의 공동 숙제임에 틀림없다.

변혜정

성공회대 여성학 강사. 논문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여성들 간의 차이> <초기 양육을 통한 어머니됨의 경험연구> 외.

서평

국가 위상강화 통한 세계화 견제방안 성장의 한계 고려하지 않아 아쉬워

《강요된 신화》



“우리는 시장 그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또한 자본주의적 시장 과정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방치해 두면, 부정의·불안정·불안정·비효율을 낳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신념 속에 미국 MIT대학의 제랄드 엡스타인 교수나 제임스 크로티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진 교수 등 세계 각국의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들이 함께 모여 90년대 초부터 수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작금의 세계화 물결 속에 강화되는 시장만능주의가 초래할 파괴적 영향을 직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도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적 수단을 모색하고자 맘을 쏟았다. 책 제목에 '진보적' 경제 정책이라는 말이 붙은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IMF나 IBRD, WTO, 그리고 월가의 큰손 등 세계화론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듯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단일한 세계시장 창출과 국민국가적 장벽의 제거, 온갖 규제의 완화 등이 이뤄지지만 하면 각국의 부가 증대하고 복지가 확대되며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강요된 신화'는 그야말로 '신화'가 된 지 오래다. 왜냐

하면 개방화·탈규제화·민영화·유연화 등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 각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며, 생태계 파괴와 노동조건 저하 등 '밑바닥을 향한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진단은 비단 제3세계나 후진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신자유주의 물결의 원조국인 영국과 미국조차도 사회가 20%의 승리자와 80%의 패배자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른바 '세계화의 뒷'에 야무지게 걸려들고 있으며, 심지어 그 중주국들조차도 자기 뒷에 걸려들고 있는 셈이다. 오로지 한줌의 거대 갑부들과 권력자들(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지대계급)만이 뒷에 걸린 포획물들을 주워담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판을 넘어서, 국민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강화하고 세계화의 파괴적 효과를 상쇄하면서도 시장 효율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들을 이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기존의 세계화 비판서들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자 강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시장 세계화 과정 속에 적극 개입하는 국민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권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을 탐색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총수요 확대정책, 해외직접투자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 평등주의적 성장정책, 공공 투자정책, 정치적 세력의 균형 유지정책 등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견지하고자 노력한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긴 하다. 근본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국가와 시장 사이의 '힘겨루기'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 새로운 토론거리도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여전히 세계화 물결을 주도하는 신고전파적 이론에 대한 좋은 안티-테제를 던진다는 점에서 특히 연구자들에게 일독의 가치가 있다.

강수돌

고려대 국제정보경영학부 교수. 저서 <경영과 노동> <작은 풍요>. 역서 <세계화의 뒷> 외.